

조각적 거리의 파토스

글/ 임성훈(현대미술학회장, 미학)

최인수의 조각에는 마음과 조형적 형식 사이에 놓여있는 난제aporia에 대한 지속적인 사유가 도저하게 자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의 조각의 정수는 명징한 인식론을 갖고 있으면서도 닫힌 형식으로서의 존재방식을 떠나 열린 형식으로 상상력의 자유로운 놀이(Kant)에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 표상이 아닌 생명감을 가장 자연스럽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고, 불명료함을 통해 역설적으로 조각의 존재 방식을 명료하게 펼쳐보이고 있는 것이리라.

아울러 놀이와 생명감의 조형성을 관통하는 그의 조각은 '거리의 파토스 Pathos der Distanz'(니체)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이는 성급하게 가치를 규정하거나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속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데 삶과 예술의 근저에 있는 '사이의 미학 aesthetics of between'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최인수의 나무조각을 가까이서 보거나 떨어져 보든지 간에 '거리'는 미학적 긴장과 함께 섬세한 결을, 아우라를 한껏 자아낸다. 벤야민은 아우라를 아무리 가까이 있다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즉 "어떤 거리 eine Ferne"를 일회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라 말한다.

절제의 미학으로 보이는 그의 조각은 기법이나 기교적인 면 또는 심각한 주제를 내세운 내러티브는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내러티브를 지니고 있다. 나무조각의 내러티브는 표현할 수 있는 것과 표현할 수 없는 것 달리 말해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 사이에서 흔적으로 남아 전달된다. 이런 점에서 그의 조각은 "내러티브 없는 내러티브"를 조각적 아우라로 이끌어 내는 미학적 기호가 된다.

조각으로 변용된 나무의 존재론적 흔적에서 나무를 감각적이거나 개념적으로 억압한 과정은 결코 상상되지 않는다. 그의 조각에서는 자연의 원초성과 함께 정신적 기법적 탁월성arete이 발현되고 있다. 또한 흑연으로 천천히 그은 선에서 오는 생명력, 푸른색이 이끌어 내는 무한한 감성에서도 자연적인 것에 대한 경외와 수행의 과정이 어우러져 있음을 보게 된다.

최인수는 여러 조각적 전범canon에서도 결국 '거리'가 핵심이란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 환기되는 거리의 파토스는 결코 표현될 수 없었던 조각의 현존을 드러낸다. 그러나 조각의 현존성은 또 다시 미적 분위기 속에서 부재하게 된다.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이 있는지 묻는다. 이 심오하고 근원적인 질문은 단지 던져질 뿐 답해질 수 없는 것이다. 실상 최인수의 조각과 드로잉은 이러한 물음에 상응하는 조형언어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조각의 형식은 완전성이나 통일성으로 규정될 수 없다. 형식에서 왜 없지 않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수반될 때 그때에야 비로소 형식이 존재하게 된다.

최인수는 거리의 파토스로 이러한 물음을 지속적으로 사유하는 조각가라 하겠다. 그의 물음은 인식론적 차원이 아니라 조각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발자국 소리, 멀리서 가까이서 들리는 소리에서 시작된다.